

해남 슈퍼푸드 '또아리 블루베리' 수확 개시

과육 단단하고 당도 높아 인기

항산화 수퍼푸드 해남 블루베리가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

해남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해남 블루베리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에는 과실이 크고 영양성분이 풍부한 고품질 블루베리로 수입 산과의 차별화에도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요즘 수확되고 있는 중생종 블루베리는 소비자들이 '또아리' 블루베리, '황아리' 블루베리라는 별명을 붙여 줄 정도로 과육이 두껍고, 크기가 남다른 것이 특징이다.

또아리(와리)는 예전 물동이를 머리에 이기 위해 넣는 둥글게 만든 고리로, 블루베리 두께가 또아리 뜻지 않게 도톰하다고 하여 단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또아리 블루베리라



고 부를 정도이다.

최상급 과실만을 수확하기 위해 과실의 수를 조절하고, 유기농 초생재배를 통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작물을 관리해 온점이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의 비결이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와 면역 강화, 시력 개선 등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꼽히고 있다.

해남 블루베리는 농가 직거래나 로컬푸드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신안,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최대 60% 할인'

관광지·체험시설·숙박시설 등 9곳서 할인 혜택

신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원사업'에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국내 여행 전용 모바일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일종의 명예주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고 QR코드를 활용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음식,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표적 할인 혜택으로는 ▲엘도라도 리조트 20~60% ▲라마다호텔프라자&씨원 리조트 자은도 10~30% ▲1004섬 요트 투어 20% 할인이다.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은 신안군을 방문하여 할인 제공 시설·업체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하면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할인증이 발급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강진, 농어촌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완료

강진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20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안에서 텁승객 누구나 스마트폰 설정에서 'Gangjin BUS WIFI'를 선택하면 통신사와 관계없이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든 기기에서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서비스 특성상 누구라도 접속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당

부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버스 무선인터넷 설치로 주민과 관광객이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정보를 검색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들에게 디지털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은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군내 주요 관광지에서도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 모든 분야에 4차산업혁명 활용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를 꾸준히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영암 춘동마을, 더 살기 좋은 마을 여건 갖춘다

농림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20억 투입

영암군 미암면 춘동마을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해 올해 4월 1차 전라남도 평가, 6월 2차 국가균형발전위 대면평가를 거쳐 사업 최종 대상자로 결정됐다.

농림부의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30가구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40% 이상인 농촌 마을을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내용.

영암군은 춘동마을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해 올해 4월 1차 전라남도 평가, 6월 2차 국가균형발전위 대면평가를 거쳐 사업 최종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번 춘동마을의 공모 선정으로 영암군은 총 7개 마을, 126억 원의 생활 여건 개조사업비를 확보했다.

2023년 6월 현재, 50세대 83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춘동마을에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마을안길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회장실 정비 등이 진행된다.

나아가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마을교육과 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진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춘동마을 주민의 생활·위생·안전 등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암군의 주민복지사업과 연계해 마을주민의 더 나은 삶을 돋고, 더 많은 마을들이 더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 공모 선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의 맛 알린다... 향토 음식점 13곳 선정

홍보 지정판 제작·SNS 홍보 등 혜택



진도군이 향토성이 있고 맛있는 '향토 음식점' 1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향토 음식점은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사용해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으로 올해 처음 선정했다.

진도군 향토 음식점은 심의위원회

에서 관광객들에게 진도의 향토성 있고 맛있는 음식점을 홍보해 음식관광과 함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고 지난 8일 지정증수여식을 개최했다.

군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판 제작,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맛과 위생, 친절서비스 등 식당의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점 선정을 통해 지역 향토·특색 음식점을 발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에게 서비스와 위생, 친절도 향상을 통한 업소 수준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향토 음식점은 가운데 전복(전복해실탕), 광주훠집(장어탕), 궁전(소갈비 뜸복국), 신호등회관(양념제과), 운림뜨락(표고들깨칼국수), 제주촌갈비(울금삼겹살), 좋은자리(간재미무침), 진도밥바다(간장개장코스), 진도아리랑회센터(아리랑밥상), 한그니(나지볶음), 한우곰탕(듬뿍이 갈비탕), 희다운(생선구이모듬), 횟집(서우답회정식)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완도 고금면에 생활체육공원 준공

축구장·농구장·족구장·놀이시설·산책로 등 갖춰

완도군은 지난 9일 고금면 생활체육공원(면적 약 619번지)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허공희 완도군의회 의장, 신의준 도의원, 군의원, 최경철 완도군체육회장, 고



장,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을 갖췄다.

특히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Safety), 환경성(Environment), 편의성(Amenity) 등 'S·E·A'를 갖춘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한편 고금면에는 지난해 3월 파크골프장에 이어 생활체육공원까지 조성돼 면민들이 실내외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고금면은 지리적 장점과 인근에 해양체육센터 등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건립되면 전지훈련 및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군민들이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물론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2022 행복해남!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